

최근 저자들은 53세 남자의 악이복근하 임파절(subdigastric node : 6×3×2cm)에서 단일 임파절내 성문하부 편평상피 세포암과 갑상선 유두상 선암이 복합전이된 예를 치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20 —

### 두경부 악성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세포성 면역 상태(제 1보)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서장수 · 박문흠 · 최재영 · 송계원

종양에 관여하는 면역기전은 세포성 면역반응이 관련되어 있으며, 항체반응에 관여하는 체액성 면역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세포성 면역반응에는 혈중 T-cell이 그 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양의 발생시 일어나는 체내의 면역반응 이상은 T-cell의 숫적 감소, suppressor T-cell (T8 cell)의 활동성의 증가나 interleukin-2 receptor 및 interferon 생산의 감소, B-cell에 의한 Ig G 생산의 감소등이 그 원인인자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 체내의 세포성 면역상태를 파악하려는 시도로, T-cell이 활성화되면 세포표면에 발현이 증가되어 혈중으로 유리되는 가용성의 IL-2R와 T-cell에서 유리된 Interferon-gamma의 작용으로 macrophage에서 생합성되어 혈중으로 유리되는 Neopterin의 혈중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행해지고 있다.

이들 두물질은 자가면역질환, 바이러스성 질환, 장기 이식후 거부반응, AIDS, Leukemia, Lymphoma, Genito-urinary Tract Cancer등의 악성종양에서 그 혈중치가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 30례에서 IL-2R와 Neopterin의 혈중치 및 T-cell의 백분율, T4-T8 ratio를 측정함으로써 환자의 세포성면역상태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 결과, 전체 30례 환자의 혈중 IL-2R의 평균치는 631.8u/ml로 대조군의 373.9u/ml에 비해 증

가되어 있었고(<0.01), Neopterin치는 5.9nmol/L로 대조군의 5.9nmol/L과 차이가 없었으며, 환자의 T-cell 백분율은 77.7%로 대조군의 75.2%에 비해 증가되어 있었고(p<0.01), T4/T8 ratio는 1.7로 대조군의 1.2에 비해 역시 증가되어 있었다(p<0.01).

— 21 —

### 부갑상선 낭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윤석진 · 소의영 · 박정수

부갑상선 낭종은 드문 질환으로 대부분 전경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에서 발생한 종괴로 오진하기가 쉽다. 저자들은 부갑상선 낭종으로 판명된 7예의 환자를 수술 치험한 경험이 있어서 보고하는 바이다.

1) 연령 및 성별 분포는 6예는 여자, 1예는 남자였고 40대가 6예, 30대가 1예로 대부분 40대 여자이었다.

2) 수술전 진단은 2예에서 낭종을 세침 흡입 천자하여 부갑상선 홀몬을 측정하여 부갑상선 낭종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5예는 갑상선 낭종 의심하에 수술을 하였다.

3) 낭종의 위치는 5예에서 갑상선 하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2예는 상부 종격동에서 발견되었다.

4) 1예에서 부갑상선 선종과 1예에서는 Hashimoto's thyroiditis가 동반되었다.

5) 낭종의 크기는 직경이 3~10cm이었으며 내용물은 전부 맑은 액체였고 맑고 투명한 막에 싸여 있었다.

6) 수술은 타 질환이 동반된 2예와 갑상선 낭종과 구별이 힘들었던 2예에서 낭종을 포함한 한쪽 갑상선 엽을 절제하였으며, 3예에서는 낭종만 절제하였다.

이상의 소견으로 전경부의 낭종성 종괴는 갑상선 낭종이 대부분이나 드물게는 부갑상선 낭종으로 판명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수술전에 진단을 위해 갑상선 부위에 낭종이 있으면 세침 흡입을